

통합 대중교통 플랫폼의 개발 및 실증에 관한 기초 연구-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김민정*, 박성훈**, 김준희**, 최은수**, 신정석***, 김희경****

*동아대학교 도시계획공학과 박사과정

**동아대학교 도시계획공학과 학부과정

*** (주)에스엔씨 대표이사

****동아대학교 도시계획공학과 부교수

e-mail:kmlalswd@hanmail.net

Pilot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Integrated Public Transportation Platform-Focused on Busan Metropolitan City

Minjeong Kim*, Sunghoon Park**, Junhee Kim**, Eunsoo Choi**,
Jeongseog Shin***, Hoe Kyoung Kim****

*Dept. of Urban Planning and Engineering, Dong-A University

**Dept. of Urban Planning and Engineering, Dong-A University

***SNC Inc.

****Dept. of Urban Planning and Engineering, Dong-A University

요 약

최근 교통수단과 ICT의 접목을 통해 SOCAR, UBER 등과 같은 공유자동차 서비스나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가 스마트 모빌리티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들은 도심의 중단거리 통행을 흡수하고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까지 이동함으로써 도시교통문제를 경감시키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들을 활용하면 대중교통 이용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보행시간의 단축이 가능하다.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공유서비스는 개별 기업들을 중심으로 파편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통합 대중교통 플랫폼 구축을 통해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 서비스를 통합하고자 하며, 개인형 이동수단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MaaS는 스마트 시티 시대에 요구되는 교통 서비스 플랫폼으로 다수단 연계, 경로선택 그리고 결제에 이르는 과정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국내에서는 교통수단을 통합하여 예약하고 결제할 수 있는 MaaS앱과 탑승자 인식장비를 개발하고 실제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증사업을 수행 중이며 2010년 10월 영종국제도시에서 스마트 버스 ‘아이모드(I-MOD)’가 운행 중이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통합 대중교통 플랫폼의 개념을 정립하고 플랫폼의 구성요소와 운영체계를 연구 및 개발하고자 하며 통합 플랫폼은 대중교통 수단을 비롯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를 연계하고자 한다. 현재 부산광역시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대여 현황 및 주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운영 서버와 DB를 구축하였고, 대중교통체계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수단간 상호 호환이 가능한 인터페이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과 통합 대중교통 플랫폼과의 연계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현장 검증이 가능한 prototype 및 요금결제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을 통합 대중교통 플랫폼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